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준서\*

## < Abstract >

### Reframing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through a Hybrid Culture Mining Framework

This study explores a new direc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by proposing a hybrid model that integrates online and offline learning with a culture-mining-based inquiry approach. Traditional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have relied heavily on short-term physical mobility and experiential activities, often resulting in limited continuity, insufficient depth of reflection, and unequal access for student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re-conceptualizes international exchange as a structured learning process in which preparation, observation, analysis, and reflection are interlinked.

The hybrid Culture Mining Exchange Program introduced in this study combines pre-exchange online learning, on-site field exploration, and post-exchange analytical activities within a unified pedagogical structure. Culture mining, which involves the coll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ultural data such as text, images, discourse, and spatial elements, enables students to move beyond passive cultural consumption and engage as active cultural analysts and co-producers of knowledge. Through systematic data collection, critical interpretation, and collaborative meaning-making, students develop deeper intercultural awareness and analytical competences.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of the Glocal Meta-Bridge Campus as a digital learning ecosystem that supports hybrid international exchange. By integrating metaverse-based virtual campuses, online collaboration tools, and digital analytical platforms, the model enhances learning continuity, inclusiveness, and accessibility. This structure allows students—regardless of physical mobility constraints—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intercultural learning and to sustain inquiry beyond a single visit.

The findings suggest that hybrid, culture-mining-oriented exchange programs can shift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education from experience-centered to inquiry-centered learning. This approach not only strengthens intercultural competence but also fosters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skills, and data-driven cultural interpret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hybrid models represent a promising direction for future international education and calls for further empirical research on program design, digital learning environments, and learner experience.

\* 문화프레임빅데이터연구소 연구소장

Field : Educational Technology

Keywords : hybrid international exchange, culture mining, intercultural competence, blended learning, metaverse campus, glocal education

## 1. 머리말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상호문화 역량을 함양하고 글로벌 마인드셋을 키우는 핵심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전통적으로 국제학생교류는 서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현지 문화체험과 교류 활동을 수행하는 오프라인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져, 고등교육 국제화(higer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문화 이해 증진,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해 왔다<sup>1)</sup>. 그러나 전통적인 대면 국제교류는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비용적 부담이 매우 크고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체험 중심의 운영은 학습 성과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 한다<sup>2)</sup>.

또한, 장기간 지속된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여,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교류(virtual exchange) 모델들이 교육현장에 도입되었다. 온라인 화상회의,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상호 작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문화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해외의 또래 집단과 게임을 함께 플레이하거나 유튜브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등 과거 관광이나 견학 위주의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교류의 범위와 형태를 확장시켜, 정규 프로그램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디지털 교류 활동이 새로운 문화학습 유형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교류에 익숙해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국제교류란 일정 기간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대면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혼합형 접근 방식은 온라인 교류의 편의성과 지속성, 오프라인 교류가 지닌 심층적 체험이라고 하는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완화하면서도 대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문화적 맥락 체험과 친밀감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 융합형 대학생 국제교류 운영모델이 수행되고 있으며<sup>3)</sup>, 온라인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준 대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병행 추진함으로써

1) Byram(1997)

2) Deardorff(2006)

3) 2022년도부터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지속되어온 성결대학교 컬처마이닝 코스 (CMC)가 대표적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글로벌 컬처마이닝(Culture

국제교류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팬데믹으로 탄생한 비대면 교류 방식이 위기 대응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국제교류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될 가능성은 시사한다. 온라인 기반 국제교류와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 교류 모델의 확산은 국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특히 O'Dowd(2018)는 온라인 상호작용 기반의 가상교류(virtual exchange)가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면서도 국제적 상호작용의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국제교류와 컬처마이닝<sup>4)</sup>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합하여 개발된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유형의 특징과 장점을 고찰하고, 컬처마이닝 기법의 개념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 후, 해당 프로그램이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의 함양과 참가 학생들의 정체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분석·논의한다. 이를 통해 향후 컬처마이닝 기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이론적 의의와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동시에 그 확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2. 연구 배경

국제학생교류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의 핵심 요소로 기능해 왔는데, 전통적으로는 교환학생, 단기 해외연수, 국제 공동 프로그램과 같은 물리적 이동 기반의 경험 중심 활동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교류 경험은 학습자의 문화 인식 확대와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sup>5)</sup>.

국제교류 경험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학습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적응하며 상호작용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강조되어 왔다<sup>6)</sup>. 국제교류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학습 성과 향상과도 긍정적으로 연결되는데, 미국 커뮤니티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Whatley, M.(2024)는 가상 국제교육(virtual exchange)과 전통적인 대면 해외학습 모두가 누적 GPA 및 학위 취득 확률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ee et al. (2022)가 국제 가상교류 프로그램(International Virtual Exchange)을 통해서 47,000명 이상의 학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PA 및 유지율(retention), 졸업률(graduation rate)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학생교류가 단순한 문화 체험의 범주를 넘어, 학업 성취 및 학

Mining)이라는 혁신적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교류 참가 학생들이 교류 과정에서 자문화와 상대문화를 비교·분석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류 모델로 능동적이고 심층적인 상호문화 학습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4) 이준서(2021)

5) Byram(1997)

6) Whatley, M(2024)

습 성과와도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학생교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상호문화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의 향상이다. 여기서 상호문화 역량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Deardorff(2006)는 이 개념을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태도-지식-기술-내적·외적 성과가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적 역량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상호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태도의 형성, 문화이해에 대한 지식 축적,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 훈련, 그리고 이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Deardorff는 이러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학습 목표, 구조화된 상호작용, 체계적 성찰(reflective practice)이 결합될 때 비로소 교육적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일본 대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한 Hanada(2019)의 연구는 국제교류 경험의 유형뿐 아니라,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유무, 프로그램 중·후반부의 성찰 활동 여부가 상호문화 역량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국제학생교류가 단순히 해외에 다녀오는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교육 설계와 학습적 구조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역량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국제교류는 해외 체험이나 문화 접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구성된 학습 과정으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학생교류는 상호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장을 제공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는 경험만으로는 이러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 상호문화 역량이 실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단순히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성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구조화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문화적 경험을 분석적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인문학 영역에서 제안된 컬처마이닝(Culture Mining)<sup>7)</sup> 개념은 개인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문화 표현과 자료를 수집·정제·해석함으로써 문화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제교류 교육에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컬처마이닝은 국제학생교류를 단순한 체험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탐구형 학습 모델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이론적 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

7) 이준서(2021)

Culture Mining is the process of finding useful or interesting ‘cultural elements’ -life styles, patterns, fashions, trends, models, beliefs, rules, frames etc.- of a specific region or a generation from unstructured text, various image sets by comparing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s.

컬처 마이닝이란 인간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를 분석하여 언어/지역/성별/세대별 문화를 구성하는 문화요소와 그들간의 관계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이준서(2021)

컬처마이닝은 텍스트, 이미지, 공간 정보, 담론, 감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문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제·분석하여 그 안에 내재한 의미 체계와 가치 구조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방법은 문화 경험을 단순한 감각적 체험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학습자가 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맥락화하는 분석적 학습 영역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교류 교육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컬처마이닝은 현장에서 관찰한 장면이나 상징, 언어 표현, 사회적 행동 등을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하고 비교·해석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학습자가 문화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특성은 국제학생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전통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종종 ‘문화 소비자’의 위치에 머무르며,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소개 받는 수동적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컬처마이닝 접근법을 적용하면 학습자는 더 이상 일회적 체험의 수용자가 아니라, 관찰과 분석을 통해 문화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문화 분석자(cultural analyst)로 전환된다. 나아가 국제 파트너 학생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해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문화적 관점이 교차하며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공동 지식 생산자(co-producer of knowledge)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컬처마이닝은 국제학생교류를 ‘해외를 다녀오는 경험’에서 ‘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문적 탐구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이론적 틀이며, 학생들이 상호문화 역량을 비판적·분석적·협업적 관점에서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적 기반을 제시한다.

국제교류에 컬처마이닝 개념을 접목한 글로벌 컬처마이닝 코스(Culture Mining Course, CMC)는 복수의 해외 대학교와 협업하여 운영되는 온·오프라인 결합형 국제 캠퍼스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메타버스 기반 가상 캠퍼스를 활용한 사전 온라인 수업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교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존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갖는 시간·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학습 구조를 제시한다. 사전 온라인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문화 이론 학습, 상호 교감 형성, 비교문화적 이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초 학습을 토대로 오프라인 단계에서는 집중적인 문화 체험과 프로젝트 활동이 이뤄진다. 이러한 단계적 결합 구조는 단일 방식의 교류에서 얻기 어려운 학습 효과를 가능화

게 한다.

특히 CMC는 참여 대학의 정규 수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더욱 크다. 교류 기간 동안 수행된 문화 분석 과제와 산출물은 학기 중 심화 수업에서 다시 확장·적용되도록 설계되어, 단발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적 학습 경험을 보장한다. 더 나아가 동계 방학에는 상대교 학생들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이 이어져, 온라인-오프라인-역방문으로 연결되는 양방향 국제교류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이는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모델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학습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 사례이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교류는 팬데믹 이후 급부상한 블렌디드 국제교류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을 서로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각 접근법의 장점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교육적 전략이다. 온라인 단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대국 학생들과 초기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공동 과제를 수행하며 문화적 배경 지식을 축적한다. 이를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기 관계 형성과 기초 문화 이해가 가능해지며, 이어지는 오프라인 교류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보다 심층적인 현장 체험과 대면 교류가 이뤄진다. 즉, 온라인의 폭넓은 접근성과 오프라인의 깊이 있는 경험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전체 학습 효과가 강화된다.

국내외 선행연구 또한 이와 같은 혼합형 교류 모델의 교육적 효과성을 지지한다. 김경선·김혜원(2025)은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협력학습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에서, 실시간·비실시간 활동의 병행과 일정 기간 오프라인 활동의 추가 제공이 학생들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ICC)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실험집단은 대조집단보다 ICC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지식, 태도, 기술 등) 모두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상호작용 참여도, 상호작용에서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교류 자체가 문화 간 소통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실시간·비실시간 학습의 조합, 외국어와 모국어의 병행 사용이 상호문화 이해와 학습 동기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적 요소를 결합한 학습 환경이 문화 학습에 매우 효과적임을 뒷받침한다.

정선옥(2023)의 연구 또한 온라인 국제교류의 장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분석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교류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국가의 또래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문자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비롯되는 비언어적 신호의 부족, 기계번역의 오류, 기술적 불안정성 등은 깊이 있는 교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온라인 교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접근성의 용이성을 꼽았고, 이는 온라인 교류가 오프라인 교류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재로서 활용할 때 더 큰 교육적 효용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모델은 온라인의 접근성과 오프라인의 심층 경험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단방향적·단기적 교류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풍

부하고 지속 가능한 상호문화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국제교류의 패러다임이 이미 체험 중심에서 탐구 중심, 단발성 프로그램에서 순환적 학습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제교육의 혁신적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새로운 고등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3.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교육적 함의

#### 3.1 학습 연속성 강화: 사전-현장-사후가 연결된 통합적 학습 구조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를 단순히 해외 체류 경험으로 이해하던 전통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설계하여 한 교육적 시도에서 출발한다. 즉, 학생이 외국을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목적화하던 기준의 모델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준비-관찰-분석-성찰’이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학습 성과가 측정되도록 설계하였고, 국제교류를 경험적 활동이 아니라 과정 중심 학습(process-based learning)으로 재정의하였다.

본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이 일회적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사전 온라인 준비 단계에서 형성된 관심과 질문이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관찰과 자료 수집으로 이어지며, 다시 사후 분석과 성찰 단계에서 의미 있게 재구성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설계된 학습 구조는 단순한 체험의 나열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지속적 학습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사전-현장-사후의 세 단계를 별개의 활동으로 분리하지 않고, 일련의 학습 여정으로 통합하여 운영된다. 사전 단계에서 구축된 인지적 틀과 탐구 방향성은 현장 단계에서의 관찰 기준으로 작동하며,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후 단계에서 심층 분석의 토대로 이어진다. 즉, 각 단계가 선형적으로 나열된 절차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순환적 학습 구조(cyclical learning structure)를 이루고 있어, 일련의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학생들은 국제교류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문화 역량과 분석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표 1>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교류의 단계별 학습구조

구분	주요 목적	인바운드 학생 활동	아웃바운드 학생 활동	기대 역량
사전 단계 (온라인)	학습 방향 설정 및 준비	· 한국 문화 핵심 키워드 사전 탐색	· 파트너 국가의 사회·문화 이슈	· 사전 문화학습 역량·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학생들과 공동 탐구 주제 조정</li> <li>한국 현지 조사 지점 사전 브리핑</li> <li>데이터·이미지 수집 기준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파트너와 공동 연구 설계</li> <li>현지 탐구 공간·인터뷰 대상 예비 조사</li> <li>데이터 수집 규범·윤리 학습</li> </ul>	설정 능력 상호문화 적응 기초·분석 준비 역량
현장 단계 (오프라인)	실제 탐구 및 자료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내 문화공간·명소·생활권 직접 탐구</li> <li>한국 대학과 지역 사회의 문화 경험</li> <li>현지 학생과 공동 필드워크</li> <li>사진·영상·메모 형태의 자료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트너 국가의 도시·공간·생활문화 탐구</li> <li>로컬 커뮤니티 상호작용·관찰</li> <li>해외 학생과 팀 단위 필드워크</li> <li>다종적 자료 수집·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기반 탐구 능력</li> <li>문화적 민감성·적응력</li> <li>관찰·기록 능력</li> <li>글로벌 상호작용 역량</li> </ul>
사후 단계 (온라인)	자료 분석 및 성찰, 산출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문화에 대한 해석·의미화</li> <li>한국 학생과 비교 분석 결과 정리</li> <li>공동 발표·보고서 제작</li> <li>문화적 편견·오해 성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문화에 대한 해석·분석</li> <li>현지 파트너와 수집 자료 비교</li> <li>영상·리포트·대시보드 제작</li> <li>자기중심적 관점 재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판적 분석 능력</li> <li>상호문화 비교·해석 능력</li> <li>협업·조정 능력</li> <li>표현·산출 능력</li> </ul>

사전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서로의 배경과 관심사를 공유하며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친밀감 형성 차원을 넘어, 이후의 공동 탐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심리적·인지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현장에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할지,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할지를 함께 논의하며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나아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조사자의 태도, 이미지·텍스트 기록 방식 등 실질적인 준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은 이후의 현장 경험이 단순한 우연적 발견에 머무르지 않고 ‘의도된 탐구(intentional inquiry)’로 전개될 수 있도록 돋는다. 이러한 준비 과정 덕분에 학생들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관찰의 범위와 질문의 초점을 갖추게 되며, 이는 현장에서의 탐구가 보다 깊이 있고 목표지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현장 단계에서 학생들은 사전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와 관점을 실제 상황 속에서 검증하며 보다 구체적인 탐색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간의 분위기, 사람들의 행동 양식, 지역사회 속 상징물과 장소성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견학이나 방문과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설정한 문제의식에 따라 자료를 수집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동일한 현상을 마주하더라도 학생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분석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 학생들과의 토론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비교하는 학습의 장을 형성한다. 결국 현장은 관찰·기록·해석이 동시에 발생하는 역동적 학습 공간이 되며, 학생들은 살아 있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탐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후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활동이 핵심이 된다. 학생들은 사진, 메모, 인터뷰 내용 등을 다시 펼쳐 놓고, 자료들 사이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인지, 특정 문화적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현장에서의 경험을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료를 분류하고 재구성하며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단순히 ‘보았다’는 경험을 넘어 ‘이해했다’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더 나아가 파트너 학생들과 함께 보고서나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은 서로의 해석을 비교·조율하며 하나의 결과물을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협업 능력과 표현 능력을 동시에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전-현장-사후의 일련의 단계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전 단계에서의 충분한 준비는 현장 탐구의 깊이를 보장하고, 현장에서의 관찰과 자료 수집은 사후 단계의 분석과 성찰의 핵심 자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후 단계에서의 분석과 의미 구성은 다시 학습자의 인지 틀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내면화하도록 돋는다.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학생들은 단편적인 해외 방문 경험을 넘어서, 자료를 스스로 생산하고 분석하며 결과물을 창출하는 학습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는 국제교류를 기준의 체험 중심 모델에서 학습 중심·탐구 중심 모델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 3.2 컬처마이닝의 교육적 함의

컬처마이닝(Culture Mining)은 문화 현상을 단순히 감상하거나 체험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의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 이면에 담긴 의미와 구조를 탐구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의 경험 중심 문화학습과 뚜렷하게 구별되며, 학습자가 문화의 소비자나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분석의 주체, 즉 의미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연구자로 활동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다시 말해 컬처마이닝은 ‘문화 현상을 데이터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초로, 문화자료의 선택-수집-정제-해석-생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통합된 탐구 과정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컬처마이닝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전·현장·사후의 단계 모두에서 학습자로서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사전 단계에서는 문화 관찰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이미지를 수집할 것인지, 어느 공간에서 무엇을 유심히 볼 것인지, 텍스트와 기호는 어떤 기준

으로 해석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현장에서의 관찰이 우연적인 인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목적과 기준을 갖춘 체계적 탐구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데이터 윤리, 문화민감성, 표현물의 맥락성 등 분석 과정에 필요한 기초 원리를 이해하며, 문화자료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현장 단계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학생들은 사진, 간판 문구, 대화 장면, 도시의 공간 구조, 사람들의 행동 방식 등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요소를 문화자료로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진 채 현장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체험 중심 활동과 달리 훨씬 능동적이고 분석적인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제 파트너 학생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문화의 상대성과 다양성을 더욱 뚜렷하게 경험하도록 돋는다. 즉, 컬쳐마이닝은 현장 경험을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자료화된 경험’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사후 단계에서는 컬쳐마이닝의 분석적 성격이 가장 명확해진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범주화하고, 패턴과 의미 구조를 도출하며, 자신의 해석이 어떠한 근거에 기반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텍스트 자료는 키워드와 문맥을 중심으로 의미 단위를 분류하고, 이미지 자료는 색채·구도·상징 요소를 중심으로 재해석된다. 또한 공간 자료는 동선·사용 방식·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맥락적 요인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제와 재구조화 과정은 자료를 단순한 ‘정보의 집합’에서 ‘해석 가능한 문화 텍스트’로 전환시킨다.

특히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분석은 컬쳐마이닝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요소 중 하나다. 학생들은 서로의 자료와 해석을 비교하면서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유를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서로의 문화적 배경이 해석의 기준과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깨닫는 상호문화적 학습의 장이다.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해석은 새로운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지식 생산의 과정’으로 자리 잡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점검하고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는 성찰적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 경험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문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뿐 아니라, 상호문화적 감수성, 비교 분석 능력, 비판적 사고력, 공동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컬쳐마이닝은 단순히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문화 현상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고 방식 자체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의 컬쳐마이닝은 전통적 문화체험 방식에 비해 훨씬 심층적인 학습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표 2> 컬쳐마이닝 기반 학습과 기존 문화학습 비교

구분	컬쳐마이닝 기반 문화학습	기존 문화학습
학습 철학	문화를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보고, 의미를 구조적으로 해석함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 중심으로 이해하는 접근

학습자의 역할	자료를 수집·정제·분석하는 능동적 연구자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는 수동적 체험자
학습 과정	자료 수집 → 정제·조직 → 해석 → 공동 분석 → 산출물 생성	방문·견학 → 설명 듣기 → 소감 작성 등 단선적 흐름
자료 활용 방식	이미지, 텍스트, 공간, 상호작용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적 대상으로 활용	사진 촬영, 감상 중심 활동처럼 주로 기록 중심
문화 이해 방식	패턴·상징·맥락 분석을 통한 구조적·비판적 문화 이해	현장 경험 중심의 감각적·정서적 문화 이해
학습의 깊이	의미 도출·비교·성찰까지 이어지는 심층적 탐구	인상과 감정 중심의 표면적 이해에 머무르기 쉬움
현장 활동의 성격	사전 계획된 기준에 따라 목적 기반 데이터 수집수행	일정 중심·견학 중심으로 현장 참여의 복적성이 약함
협업 방식	국제 파트너와의 공동 분석·논의·조정중심	함께 활동하지만 해석·분석은 개별적으로 수행
사전 준비의 비중	탐구 질문, 데이터 기준, 윤리 교육 등 사전 단계가 비중 높음	기본 안내 수준으로 사전 준비가 제한적
사후 활동 구조	분석-해석-산출물 제작 등 사후 단계가 핵심	활동 후 간단한 소감문·발표 등 사후 활동이 약함
평가 방식	데이터 분석 능력·비교 해석 능력·협업 과정 등 역량 기반 평가	참여 여부·태도·단순 보고 등 과정 중심 평가
학습자 성장 방향	체험자 → 관찰자 → 분석가 → 지식 생산자로 발달	체험자 중심으로 머물며 고차 학습으로 확장 제한
교육적 결과	비판적 사고·자료 해석 능력·글로벌 협업 역량 강화	문화 친숙도 상승, 정서적 경험 중심의 간접적 효과
교육 모델의 성격	탐구형·분석형·협업형	체험형·직관형·설명형
지속 가능성	사전-현장-사후가 순환되는 누적형 학습	기간 의존적 활동으로 학습의 지속성이 낮음

### 3.3 글로컬 메타브릿지 캠퍼스 기반 온·오프 하이브리드 교육 생태계

국제교류 교육은 사회·문화·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감염병 확산, 지정학적 긴장, 이동 비용 증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 국제교류의 취약성을 명확하게 드러냈으며, 단기 방문 중심 프로그램의 한계 또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이동이 가능한 일부 학생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다수의 학생은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평등은 국제교류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학습 기회의 공평성(equity)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기존 교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체험 중심 활동은 일정 기간 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학습의 깊이, 지속성, 분석적 탐구로 이어지는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국제교류 교육이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시간·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가 언제 어디서든 탐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글로컬 메타브릿지 캠퍼스(Glocal Meta-Bridge Campus, GMBC)라는 개념이다.



글로컬 메타브릿지 캠퍼스는 ‘글로컬(glocal)’이 지칭하는 세계성(globality)과 지역성(locality)의 복합적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며 학습자가 지속적이고 연결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교육 플랫폼이다. ‘메타브릿지(Meta-Bridge)’는 물리적 이동과 디지털 공간을 잇는 다중적 연결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 국제교류가 의존했던 단일한 물리적 이동 구조를 보완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상호문화적 탐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습 경로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메타브릿지 캠퍼스는 단순한 보조적 학습도구가 아니라 온·오프라인 학습을 통합하는 국제교육의 중심 구조이다.

우선 이 캠퍼스는 학습의 시작점인 사전 온라인 준비 단계를 강화한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교실에서 파트너 국가의 학생들과 처음 만남을 갖고, 함께 탐구할 주제를 논의하며, 자료 수집 기준과 관찰 프레임을 정교하게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 가상 보드, 디지털 오리엔테이션 콘텐츠 등은 학습자의 인지적 기반을 정렬하여, 현장 활동이 단순한 문화 견학이 아닌 목적 지향적 탐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사전 단계에서의 충분한 온라인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낯섦을 줄이고, 학습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미리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현장 단계에서는 온라인에서 마련된 인지적 구조와 분석 기준이 실제 문화 맥락 속에서 적용된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상징물, 언어 표현, 도시 환경, 소비문화, 지역사회 상호작용 등을 문화자료로 수집하며, 각 자료가 지니는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구축한 관찰 기준을 검증하고 수정한다. 이때 글로컬 메타브릿지 캠퍼스는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가 즉시 디지털 협업 공간으로 업로드되도록 지원하며, 현장 참여 학생과 원격 참여 학생이 동시에 자료를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상호 연동 구조를 제공한

다. 이는 오프라인 경험의 단절된 순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 공동 해석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사후 온라인 단계에서는 분석·해석·의미 구성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디지털 분석 도구를 활용해 이미지의 색채·구도·상징성을 해석하고, 텍스트·언어 자료의 의미 단위를 추출하며, 공간 데이터나 행동 관찰 기록을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메타버스 분석실, 공동 문서 플랫폼, AI 보조 분석 도구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다층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물리적 이동과 관계없이 반복적 검토가 가능하므로, 학생들은 현장에서 놓칠 수 있었던 세부 요소를 다시 발견하거나, 새로운 비교문화적 시각을 발견시킬 수 있다. 특히 국제 파트너와의 온라인 토론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해석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며, 공동의 의미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배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교육 생태계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성·포용성·확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속성 측면에서, 온·오프라인의 순환 구조는 학습이 단발성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 단계에서 심층적 분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공한다. 포용성 측면에서, 이동이 어렵더라도 온라인 기반 준비 및 분석 단계에서 적극 참여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확장성 측면에서, 메타버스·AI·디지털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하여 기존 오프라인 프로그램보다 더 풍부한 자료 접근과 비교문화적 관점 확장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메타브릿지 캠퍼스 기반 온·오프 하이브리드 생태계는 국제교류 교육을 단순한 방문형 체험 프로그램에서 분석 기반 탐구형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생태계는 고등교육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데이터 리터러시·비판적 사고·협업 역량을 어떻게 함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다. 이처럼 온·오프라인의 결합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차원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국제교육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 4. 맷음말

본 연구는 국제학생교류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적 체험 중심 모델의 한계를 재검토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방향으로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모델과 컬처마이닝 기반 탐구 학습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국제교류는 단기 방문과 현장 체험에 의존하여 학습의 지속성과 누적적 성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동 비용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참여 학생의 폭이 제한된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단발적 활동이 아닌, 학습이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는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컬처마이닝 개념은 이러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텍스트, 이미지, 공간, 담론 등 다양한 문화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정리하며, 그 속에서 의미 체계와 가치 구조를 분석하

는 과정은 국제교류를 단순한 경험 소개의 차원에서 벗어나 탐구 기반의 학습 모델로 확장시킨다. 학생들은 문화의 수용자가 아니라 분석자이자 의미 구성자로 참여하게 되며, 서로 다른 국가의 학습자들과 공동의 해석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지식을 함께 생산하는 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국제교류가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는 활동이 아니라, 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분석적 사고를 길러내는 교육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강조한 사전-현장-사후의 순환적 학습 구조는 하이브리드 국제교류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사전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관찰 과제와 탐구 질문을 설정하고, 현장 단계에서는 이러한 틀을 실제 공간에서 적용하며 다양한 문화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 사후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학습은 깊이 있는 탐구로 이어진다. 이 세 단계가 단절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국제교류는 한 번 다녀오는 체험이 아니라 분석과 성찰의 반복을 통해 성장하는 학습 여정으로 자리 잡는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메타브릿지 캠퍼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은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모델의 교육적 가치를 한층 강화한다. 가상 캠퍼스와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한 학습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이동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을 결합한 학습 생태계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료 분석 도구와 결합할 수 있어 국제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은 제시한다.

이와 같이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를 체험 중심에서 탐구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학습의 연속성과 깊이를 보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상호문화 역량, 비판적 사고, 공동 문제해결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교류 모델은 국제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이 추구해야 할 미래 지향적 국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선·김혜원. (2025). 온라인 국제교류 협력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41(5), 5–38.
- 이준서(2021). R컬처마이닝, 박문사.
- 정선옥. (2023). 청소년의 온라인 국제교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문화와 예술연구*, 21(21), 213–245.
- Byram, M. (1997).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Deardorff, D. K. (2006).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41–266.
- Hanada, S. (2019).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Japanese Students' Intercultural Competence Developed Through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2019 Vol. 9 No 4, 9(4), 1015–1037.
- Lee, J., Leibowitz, J., Rezek, J., Millea, M., & Saffo, G. (2022). The impact of international virtual exchange on student succes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2(S3), 77–95.
- O'Dowd, R. (2018). From telecollaboration to virtual exchange: State-of-the-art and the role of UNICollaboration in moving forward. *Research-publishing.net*, 1, 1–23.
- Whatley, M. (2024). International Education's Academic Benefit: Potential for Community College Virtual International Exchang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65(7), 1647–1678.

### < 요지 >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국제학생교류가 지닌 기존의 체험 중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모델과 컬처마이닝 기반 탐구 학습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통적 국제교류는 단기 방문과 대면 경험에 의존하여 학습의 지속성·누적성·분석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으며, 이동 여건에 따라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현장·사후의 학습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준비·관찰·분석·성찰이 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학습 구조를 제안하였다. 특히 컬처마이닝은 텍스트, 이미지, 공간, 담론 등 다양한 문화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접근 방법으로, 학습자가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닌 문화 분석자이자 지식 공동 생성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글로컬 메타브릿지 캠퍼스는 메타버스 기반 가상 공간과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포용적 국제교류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컬처마이닝 국제교류 모델은 상호문화 역량,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국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연구분야 : 교육공학

키워드 :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컬처마이닝, 상호문화 역량, 메타버스 캠퍼스, 글로컬 교육